

臺灣海峽 兩岸間の 文化 相互作用 關係

王 章 陵

- | | |
|-----------------------|-------------------|
| I. 前 言 | 關係 |
| II. 臺灣海峽 兩岸의 社會文化 變遷 | IV. 臺灣海峽 文化 相互作用的 |
| III. 臺灣海岸 兩岸의 文化 相互作用 | 장애 |

〈要約文〉

1.

중국역사를 回顧컨대, 일찌기 周代에 찬란한 文化를 누렸으니 그것은 中華道統과 倫理로써 根本을 삼는 社會構造에 기인한 것이며 그후 2천여 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明末이후 서양문물의 內襲으로 국세는 날로 쇠약해지고 이로 인해 지식분자들이 주도하는 自強運動이 발생하게 되었다. 혹자는 「孔家店을 타도」하여 서양의 방법으로 中國을 改造하기를 주장하고, 혹자는 蘇俄를 본받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실행할 것을 주장하고, 또 혹자는 고유문화를 發揚함과 아울러 세계문화를 흡수하여 우리의 것을 더욱 빛낼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文化의 分岐로 말미암아 마침내 1940 년대에 中國의 분열이 초래되었으니 하나는 中華民國이고 다른 하나는 ‘中華人民共和國’이다.

1949 년 中共이 집권한 후 중국대륙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指導方針下에 「社會主義改造」를 진행하여 政治運用과 경제생활 및 思考方式의 一元化를 요구함으로써 人民을 장악하기 위하여 極權體制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文化體系를 이룩하였다.

中華民國은 1949년 중국대륙으로부터 臺灣·澎湖·金門·馬祖 등으로 건너온 후 三民主義原理를 토대로 삼아 그 사회문화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30여년간 경제방면에서는 농업사회로부터 고도의工業社會로 매진하였고 政治方面은 民主의 기초상태에서 성숙한 民主化로 돌입하였으며 文化·教育方面은 더욱 전통과 현실을 結合하여 現代化 國家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海峽 兩岸의 文化發展은 이미 異質化와 兩極化의 趨勢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2.

오늘날 海峽 兩岸의 文化發展이 이미 異質化·兩極化되었다면 과연 앞으로 文化相互作用(interaction)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그 대답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중국의 고유한 文化가 아니고 외래문화이기 때문이다. 중국역사를 살펴 보면 외래문화가 中國에 전래된 적이 두번 있는데 하나는 佛敎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이다.

東漢末年에 佛敎가 中國에 전래되어 南北朝까지 왕성한 敎勢를 누렸지만 中國의 전통문화와 衝突함으로써 道·佛의 對立 및 儒敎의 부흥을 야기시켰다. 儒·道와의 衝突로 인하여 佛敎 내부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禪宗이 흥기하여 두 文化의 충돌점이 제거되니 三敎歸一說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독교는 일찌기 唐이전부터 여러차례 中國에 전래 되었지만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明末에 捲土重來하여 예수회의 세력이 당시 가장 왕성하였다. 淸나라 康熙까지 줄곧 기독교인들도 祖上崇拜가 가능한지의 論爭이 발생하여 마침내 政敎의 충돌을 초래하였다. 기독교 주교 지아루(嘉祿)가 타협을 주장했지만 교황이 접수하지 않음으로써 예수회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반면 기타 교파들은 지아루의 주장을 받아 들여 여전

히 중국에서 포교활동을 할 수 있었다.

역사 사실이 증명하듯이 中國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발전은 비록 일시적으로 흥기한 적은 있지만 모두 충돌과정을 거치면서 中國文化로 유입되어 결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불교나 기독교 국가로 바꾸지는 못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中國에 전래된 세번째의 외래문화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중국 전입 속도는 대단히 신속하여 불교나 기독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1958년의 '人民公社化運動'에 이르러 일대 전환점을 맞는다. 즉 '人民公社'는 중국전통·가정제도를 파괴하였고, 이것은 두 문화 충돌의 초점이 되었고 또한 새로운 決戰에 임하는 시각이 되어 결국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실패하였다. 그후 모택동이 비록 '文化大革命'으로써 그 쇠퇴한 運命을 구해 보려고 하였지만, 역사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등소평의 수정주의路線의 출현이 마침내 등장하게 되었다. 등소평은 人民公社를 취소하고 계급투쟁을 완화하였으며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大陸人民들로 하여금 그 전통 生活方式를 되찾게 하였으니 이는 곧 '毛澤東思想'의 反動이요,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쇠퇴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1957년 중국대륙의 鳴放時期에 章伯均은 '中國文化優越論'을 의쳤고 1962년 대륙의 學術界는 '尊孔論'을 주장했으며 근래에는 전통문화의 재정리, 中西文化의 재탐구 및 中國文化의 세계적 주도 역할 등의 요구가 일어나는 등 '中國文化 現代化' 전반을 토론하는 文化熱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中華民國은 1958년에 일찌기 '新儒敎' 풍조가 일어났고 그후 1966년에 '中華文化 復興運動'을 발동했으며 근래의 學術界는 海峽 兩岸의 學術交流 및 文化 相互作用에 대해 자주 論하고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海峽 兩岸 지식분자들의 외침은 그 同一性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孟子가 말

한 바와 같다. 즉 “吾聞用夏變夷者，未聞變於夷者也。” (나는 夏(中國)로써 오랑캐를 변화시키는 것은 들었어도 오랑캐에 의해 변화하는 것은 일찌기 듣지 못했다.) 이는 中國人의 文化信念이자 또한 海峽兩岸 지식분자들의 공통 인식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中共은 과거의 불교나 기독교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왜냐하면 오늘날 中共은 政權·軍隊 그리고 탁월한 조직과 투쟁성을 지니고 있는 ‘職業革命家의 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共產黨의 政策은 변화가 심하므로 등소평이 비록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수정하고 있지만 결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四個堅持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독단적이며 전제적인 정치권력 집단인 그들은 오늘날 스스로 建黨 基礎가 되는 意識形態 및 共產黨 관료통치자의 持權이익을 포기하고 아울러 多元化 發展原則을 수용하여 평화적 民主政權으로의 전환을 꾀함으로써 ‘文化中國’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은 空想的인 발상에 불과하다. 中共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海峽兩岸의 文化 相互作用(interaction)의 장애를 해소할 수 없을 뿐더러 서로 자기 다른 意識形態의 마찰 또한 여전히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다.

I. 前 言

오늘날의 中國은 일찌기 1949년부터 이미 하나가 둘로 나뉘었으니 하나는 中華民國이고 또 다른 하나는 ‘中華人民共和國’이다. 兩者가 臺灣海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지 겨우 30여년에 불과하지만 意識形態·政治·經濟 및 社會構造 등에서 이미 현저한 分化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分化된 中國이 과연 다시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늘날 海峽兩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있는 분야이자 지금도 열렬히 토론되고 있는 초점이다. 이 문제를 토론하려면 반드시 歷史·現

實 및 未來 등 각 方面에 對한 系統한 研究가 있어야만 비로소 正確한 判斷을 내릴 수 있다. 本文은 文化方面에 그 重點을 두어 分析하려고 한다.

Ⅱ. 臺灣海峽 兩岸의 社會文化 變遷

中國 歷史를 회고컨대 일찍이 성숙한 文化를 누린 시기가 있었으니 唐·虞·三代는 원시로부터 文明으로 나아가는 시기이며 周代에 이르러 비로소 성숙된 文物을 누렸으며 堯·舜·禹·湯·武·周公 그리고 孔子에 이르기까지 道統을 創立하고 아울러 倫理로써 표본을 삼는 社會構造를 확립했다. 그후 中國은 근 2천여년 동안 별다른 變化없이 그것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明末 후 서양의 軍事政治·文化 등 각 方面의 外勢가 明을 몰탈듯 내습하여 당시의 社會를 領導하는 지식분자들은 한편으로 민족전쟁의 挫折을 받아 민족의식을 고양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서양 文明문명의 우월성을 부러워한 나머지 서양의 장점을 배우자는 풍조가 강하게 일어 결국 自強運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自強運動 이후 세 가지의 주장들이 대두되었다. 첫째는 '孔家店을 打倒하고', '서양의 새로운 方法으로' 中國을 改造하자는 것이며¹⁾, 둘째는 '孔家店을 打倒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실행하여 러시아를 따르자는 것이며²⁾ 세째는 우리 고유의 文化를 發휘하고 아울러 세계 文化를 흡수하여 우리의 것을 더욱 빛내자는³⁾ 것이다. 이 몇몇의 주장은 의심할 바 없이 세 종류의 서로 다른 文化를 설계한 조감도이다. 現代中國은 自強運動 이후 줄곧 각기 다른 文化양상을 내포한 나머지 결국 20세기 40년말에 中國政治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中

1) 陳獨秀, "今日 中國의 政治問題", 「新青年」五卷 一期, (北京, 新青年編輯委員會, 1918年 7月), p. 1.

2) 李大釗, 「불란서, 러시아 革命의 比較觀」, 《李大釗選集》, (北京, 人民出版社, 1962年), p. 104.

3) 孫文, 「中國革命史」, 《國父全集》第二冊, (臺北, 中央文物供應社, 1974年 6月), p. 7~9.

國의 분열은 文化的 分岐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1. 海峽 兩岸：中國大陸 社會文化的 변천

1949년 中共이 中國大陸을 점거한 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中國大陸을 改造하기 시작했다. 소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목표는 資本主義社會를 철저히 파멸한 후 社會主義社會로부터 共產主義社會로 過渡하는 데 있다. 그 사회개조의 방침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일찍이 1848년에 발표한 「共產黨宣言」에 기인한 것으로써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 혁명은 과거 전해 내려오는 일체의 所有制 관계와 철저한 결별을 실행하여 자기발전 과정중에서 조금도 주저없이 과거 전해 내려오는 각종 觀念과도 철저히 결별하는 것이다⁴⁾

말하자면, 共產黨은 政權을 장악한 후 그 통제속에 있는 社會에 대해 반드시 소유제 改造와 관념 改造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소위 소유제 개조란 재산소유제로부터 재산공유제로 轉換하는 재산제도의 改造를 가르키며 소위 觀念改造란 意識形態와 價値觀의 取間을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物質 生産力이 社會構造를 결정짓고 사회구조는 行爲方式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소유제 개조와 관념 개조는 그 關聯性 및 必然性에 있어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종류의 개조를 중공은 '社會主義改造'라고 칭한다. 또한 이 두 종류의 改造는 모두 文化的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狹義의 文化란 文學藝術 및 學術 전반을 가르키고 廣義의 文化란 人類의 生活方式 및 그 設計를 가르키는 것이다. 사유제와 공유제 사회는 각기 다른 두 종류의 社會이자 相異한 文化 형태를 설계한다.

中共의 '社會主義改造'는 政治·經濟·文化 등 모든 各方面을 포함한다. 첫째, 政治構造改造：中國 전통사회의 특징이란 政治權力의 多元化이

4) 마르크스·엥겔스, 「共產黨宣言」, 《마르크스·엥겔스全集》第四卷, (北京, 人民出版社, 1958年 8月), p. 461.

며 사회 權力系統과 政治權力系統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自由와 안정된 環境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사회 권력 方面에는 族權·紳權·師權·神權 등의 各 系統이 있지만 이는 모두 그 社會의 기본 생산단위를 家庭으로 삼는다. 개인은 가정과 지방 사무에서 충분한 自治의 權力을 획득하며 政治的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中共은 과거 수천년 동안의 政治文化는 모두 사유제의 산물이며 공산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舊 政治文化를 파괴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정치 및 사회 권력구조 方面의 이러한 대변혁은 바로 중국전통사회 권력체계중의 族權·紳權·師權 및 神權의 領導關係를 소멸하고 또 多元的인 並存制를 타파하므로써 共產黨이 통치하기에 유리한 一元化 體制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經濟構造改造: 중국 전통사회는 1949년까지 줄곧 小農業經濟社會였다. 그러나 中共이 1953년부터 生産資料 私所有制를 公有制로 전환하기 위해 農業·私營工商業 및 個體手工業에 대해 改造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三大改造’이다. 소위 農業改造란 土地改革을 통해 地主를 소멸한 후 다시 농민을 互助組 農業生産 合作社로부터 점차 人民公社의 集體所有制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소위 私營工商業改造란 公私合營 形式을 통해 점진적으로 私營工商業을 몰수하여 全民所有制로 전환하는 것이며 手工業改造란 個體手工業을 工業合作社에 나누어 合併하고 合併되지 않은 사람은 각자 경영은 하지만 여전히 集體管制에 두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統購統銷制를 제정하여 모든 사회 生産·分配 및 消費活動을 經濟計劃下에 두어 中共 당국이 그 전반을 장악한다. 이것은 바로 經濟生活의 一元化를 추구하는 것이다.

세째, 文化(협의의) 教育構造의 改造: 중공은 中國 전통문화 및 서양 개인주의 文化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상반되는 것으로 여기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不破不立·不塞不流·不止不行.” (파괴하지 않으면 서지 못하고 막지 않으면 흐르지 못하고 그치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한다.)⁹⁾ 따라서 政治經濟의 構造改造와 동시에 文化改造를 시작한 것이다. 문화 改

造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첫째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산당이 지식의 해석 및 선전매체인 방송·출판, 그리고 文藝 및 교육기관을 장악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원리로 하여금 文·史·哲 및 科學을 통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과학화하고 아울러 대중매체 및 교육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중에게 보급하여 ‘三化’ 즉 生活的體系化, 組織的軍事化 및 行動的戰鬪化를 요구하여 群衆의 思想, 價值取向과 行動方式을 통일하는 것이다. 둘째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지식분자의 社會役割을 중히 여기지 않음과 동시에 사상비판, 노동개조 및 정치적 숙청을 통해 非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을 없애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50년의 思想改造運動, 1957년의 反右派 鬭爭, 1961년의 社會主義 教育運動 및 1966년의 文化大革命등 크고 작은 사건 등이 모두 그것과 연유되어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다. 요컨대 중공은 파브르의 조건반사설을 공고롭게도 부합시켜 그것을 인간個性에 이용하여 아주 세밀하고도 철저하게 그리고 깊고도 폭넓게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 점에 대해 그 사회 효과를 평가해 보면 대단한 성과가 있었지만 이것이 지불해야 할 代價는 중국 전통사회의 대파괴이며 이러한 것은 중국 역사상 空前絶後한 것이다.

2. 海峽兩岸：中華民國 臺灣·澎湖·金門·馬祖 基地의 社會文化 변천

중화민국 정부는 1949년 臺·澎·金·馬 등으로 건너온 후 계속되는 전쟁의 고통을 벗어나 집권당의 三民主義 原理로써 社會文化 건설사업을 착수하기 시작했다.

臺灣地區는 비록 두차례 외래민족의 통치(화란과 일본)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사회구조와 민간풍속은 줄곧 1945년 일본의 통치를 벗어날 때까지 여전히 기본상으로 중국의 小農經濟와 倫理本位の 전통 의식을 유지하

5)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毛澤東選集》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1952年2月), p. 633.

여 1949년 前의 中國大陸과 大同小異했다. 1949년 이후 中華民國 정부는 臺·澎·金·馬 地區에 세가지 중요한 건설을 하였다. 첫째, 경제방면에서 三民主義의 民生主義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均富社會를 건설하고자 하는 理想으로써 生産과 分配를 동시에 증시하고 公有와 私有를 병존하고 自由와 計劃을 兼顧하고, 아울러 농업의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농업의 기초상태에서 점진적으로 輕·重工業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중공이 받들고 있는 소련 모델의 경제정책과는 그 質을 달리하고 있다. 臺·澎·金·馬 地區의 경제발전은 1953년부터 1987년까지 약 35년간 매년 평균 실질성장율이 9%에 달했으며 이 고도 성장은 공업의 눈부신 발전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同一시기 매년 평균 공업성장율은 12%에 이르렀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경제구조에 현저한 변혁을 초래하였다. 1952년 농업은 NNP의 35.9%를 점유하였고 공업은 18%를 차지하였다. 1987년에 이르러 농업의 점유비율은 5.3%로 감소되었고 공업은 오히려 52%로 증가되었으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5000 달러에 이르렀다.⁶⁾ 이것은 臺灣基地가 이미 고도의 공업사회임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정치방면을 살펴 보면 중화민국은 일찌기 1947년에 제1차 헌법은 제정하였으며 1949년 후 臺灣基地의 政治建設의 청사진이 되었다. 정치방면의 발전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민주발전 기초확립기로 1949년부터 1977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權威主義로써 현대화의 도구로 삼는 시기였으며 계엄을 통해 中共의 對臺 침투전복 활동을 저지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경제 및 민주 발전의 조건을 확립하였다. 둘째, 民主成長期로 1977년부터 1986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일찌기 1950년부터 실시해 온 지방 공직자 및 中共 공직자선거를 계속 확대하고 아울러 집권당은 새로운 사회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여 반대 세력의 존재화 활동을 용인함으로써 정치 多元化 추세를 추구하고 민주정치 발전을 더욱 공고히

6) 王作榮, “朝野人士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共識(consonance)은 大立大破의 作法을 태동하는 것이다.”, 「中國時報」, 1988년 6월 20일.

하였다. 세째, 민주 비약의 시기. 집권당이 1986年 10月 15日 계엄해제를 선포함으로써 '新黨新設' 및 '새로운 신문 발간'을 허락하여 국민과 정치집단으로 하여금 기존의 헌법내에서 더 많은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다. 2년 동안 新黨이 분연이 일어나고 국민들의 의견 표출이 대단히 활발하였다. 이것은 바로 정치 민주 발전이 대단히 성숙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나타낸 것이다.⁷⁾

문화·교육 방면에 있어, 1949년 이후 한편으로는 공산정권의 반대와 적색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비판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政治와 思想을 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족 정신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더 강화함과 동시에 학술·교육·대중매체 등 각 방면을 통해 서양문화중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뛰어난 학술을 흡수함으로써 국가 문화의 內涵을 더욱 풍부케 하였다. 대륙에서 文化大革命이 격렬한 추세로 치닫자 臺·澎·金·馬 基地 및 해외 中國人들 사이에 中華文化에 대한 위기의식이 싹터 1967年 7月 장개석 총통은 臺北에 中華文化 復興委員會를 설립하여 국가 文化의 회복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였는데 그 중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및 가정윤리의 창달과 실천, 2. 經典과 古籍의 정리 및 출판, 3. 윤리, 민주, 과학 등의 新文藝運動의 전개, 4. 現代의인 체육관과 전시장의 건립, 5. 文化復興 및 미풍양속에 대한 대중매체의 역할 고취, 6. 四維(禮·義·廉·恥) 八德(仁·義·禮·智·忠·信·孝·悌)의 新生活運動의 추진, 7. 관광사업의 발전과 역사문물의 보존, 8. 民間 文化事業의 격려 등등이 있다.⁸⁾ 1977년 중화민국 정부는 급속한 사회변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文化建設委員會를 설치하고 정부의 역량으로써 문화건설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문화자산 보호, 윤리문화 발양 및 정신문화 창달에 있어서 특히 民俗·技藝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전통과 現代를 결합한 국가의 면

7) 葛永光, 「民主化와 臺灣의 政治發展」, (臺北, 國立政治大學 國際關係研究中心, 1987年 12月).

8) 「中華文化 復興運動 十周年 記念專輯」, (臺北, 中華文化 復興運動 推進委員會, 1987年).

모를 갖추고 동시에 민간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海峽 兩岸의 과거 30년간 사회문화 발전을 총괄해 보면 專制와 自由, 薄古와 厚古, 一元과 多元의 兩極化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만약 대만을 중국대륙·홍콩 및 싱가포르와 비교해 본다면 臺·澎·金·馬 基地는 여전히 중국 전통사회의 윤리제도, 가치체제를 유지함과 아울러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현대화 사회로 매진하고 있는 유일한 淨土인 것이다. 海峽 兩岸의 文化異質性은 바로 여기로 부터 연류한 것이다.

Ⅲ. 臺灣海峽 兩岸의 文化 相互作用 關係

상술한 바와 같이 海峽 兩岸의 오늘날 政治分岐는 실은 文化的 分岐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근 30여년간 海峽 兩岸의 사회문화가 양극화로 치달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정치·지리 인수의 영향과 쌍방간의 결핍된 相互作用(interaction) 등 또한 복합적인 요인이 되어 그 양극화는 두 개의 평행선을 이루어 그 습點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整合(integration)의 可能性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整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Karl W. Deutsch의 定義에 의하면 '整合'이란 여러부분을 하나의 整體로 결합하는 것으로 먼저 각각 다른 단위로 하여금 連貫體系의 구성부분이 되게 하는 것이다.⁹⁾ 또한 만약에 어떤 體系가 고도의 合法性을 갖추고 각 구조간에 대단히 양호한 조화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는 역할을 발휘하여 인간에게 쾌적한 感을 줄 수 있으면 이 體系는 바로 整合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따라서 소위 海峽 兩岸의 文化整合은 두말할 나위 없이 海峽 兩岸의 兩極化한 文化體系의 合一이다.

9) Karl W. Deutsc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李基泰譯, 「國際關係의 解釋 및 分析」, (臺北, 幼獅文化事業公司, 1971年 7月), p. 239.

10) 江炳倫, 「政治發展의 理論」,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2年 6月), p. 95.

모두 알다시피 마르크스·레닌주의는 外來文化로써 ‘五四運動’을 전후해서 중국에 수입되어 30여년만에 그 정권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후 또 30년만에 2천여년의 두터운 기초를 가진 중국 전통사회 구조를 改變하여 새로운 意識形態를 탄생시켰다. 그것이 역사상에서 나타난 특출성은 모두를 경악케 하지만 중국 전통문화 또한 쉽사리 꺾이지 않는 강인성을 지녔으니 自古以來 수천년 동안 外來文化에 湮沒됨이 없이 綿延히 이어온 것이 바로 그 좋은 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외래문화가 중국에 진입한 적이 두차례 있으니 하나는 불교요 또 하나는 기독교이다. 중국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일시적으로 융성했지만 모두 충돌 과정을 거치면서 최후엔 中華文化로 整合되어 결국 중국을 불교나 기독교의 국가로 만들지 못하였다.

불교로 말하자면 東漢末年에 중국에 전래된 후 南北朝에 이르기까지 교세가 대단히 확장되었다. 南朝에서는 승려에 속하지만 入籍하지 않은 人口가 50%였고,¹¹⁾ 北朝에서는 洛中の 土地 1/3이 사찰에 속했다.¹²⁾ 심지어 황제조차 승려가 되었으니 예를 들면 武帝는 세번을 出家했었다. 불교가 비록 왕성했지만 불교의 많은 사회규범이 周·孔의 敎化와 相衡하였으니 불교가 나라에 들면 나라가 망하고, 집에 들면 집이 망하고, 사람에 들면 사람을 망친다는 ‘三破論’과 ‘朝廷에 들어 임금에게 굽히지 않고’, ‘집에 들어와 家長에게 굽히지 않는’ 敎義는 특히 중국 윤리에 저촉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문화는 두 개의 경로를 통해 불교에 抗拒하였다. 하나는 道·佛의 對立이요. 또 하나는 儒家의 復興이다. 中唐 이후 韓愈는 古文運動으로 文體를 해방하고 思想은 孔孟을 직접 계승하고 偏理를 배척하자고 주장함과 아울러 尊王攘夷之說을 주장하여 政治體制를 강화하였다. 道教는 家族主義와 夷憂論을 주장하여 “아래로는 妻子를 버리고 위로는 조상을 숭배치 않음”을 지적하여 “中憂의 性으로 西戎를 본받을 수 없다”고

11) 《南史》，卷七十，郭祖深傳.

12) 《魏書》，卷一百十四，釋老志.

주장하였다. 儒·道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불교 내부에 변화가 발생하여 중국 전통문화와 서로 적응하기 위해 禪宗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교 組織方面에서도 大廟(대사원)에서 小廟(소사원)로 바뀌었다. 계급제도에서도 森嚴을 平等으로 바꾸었고 君臣·父子·夫婦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 타협적이었다. 두 종류의 문화충돌 焦點이 점진적으로 소멸되자 三教歸一說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바로 儒·佛·道의 整合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³⁾

기독교로 말하자면 일찍이 唐나라 이전에 여러 차례 중국에 전래된 적이 있었지만 모두 그다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는데 明末에 다시 捲土重來하니 가장 많은 성과를 올린 전도사는 利瑪竇인데 그는 한문에 정통할 뿐 아니라 중국 문화에 대해 대단한 이해가 있어 그의 예수회는 중국의 풍속 습관에 융합하기 위해 조상숭배 및 孔子 존경 등은 교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도미니크派는 오히려 예수회 전도사들이 敎를 팔아 부귀를 누리려 한다고 여기어 교황에게 고해바쳤다. 교황은 敎書를 발하여 예수회의 부당을 꾸짖고 아울러 이후 神을 칭할 때는 天이나 혹은 上帝를 사용하지 못하며 반드시 天主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로(鐸羅) 및 지아루主敎를 파견하여 康熙를 알현케 하였다. 康熙는 중국이 조상에게 제사드리는 意義를 알고 교황이 중국에 대한 敎義를 규정할 權限이 있음을 부정하여 쌍방이 이로 인해 팽팽히 대립하였다. 지아루主敎는 이러한 실정을 이해한 후 교황의 명령은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라 판단하여 교황의 명령을 수정하여 타협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八修調停 意見을 교황은 동의하지 않고 최후 예수회를 해산시키고 말았다. 그후 雍正이 왕위를 이어 받았다. 전도사들이 八卦敎의 옹모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여기어 信敎를 금지시켰다. 따라서 중국에서 190년간 포교활동을 하였고 20만 신도를 가진 적이 있는 예수회는 마침내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¹⁴⁾ 그러나 其他 교파들은 지아루의 修正主義를 받아들여 중국에서 계속 전도활동을

13) 王治心, 「中國宗教思想史 大綱」, (臺北, 臺灣中華書局, 1960年 5月), p. 109.

할 수 있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중국에 傳入된 후 그 기세의 번창 속도는 불교나 기독교에 비해 훨씬 빨랐다. 그러나 그 발전도 1958년 ‘人民公社化運動’에 이르러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중국 전통문화와의 충돌로 ‘五四運動’ 이후 학술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는 정치문제에 반영되어 국민당이 주도하는 反共運動이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일반인들은 문화 충돌의 본질에 대해 결코 깊은 인식이 없었으며 인식한 바는 단지 政黨 측면의 충돌 뿐이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해 여전히 절대적인 배타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人民公社 건립 이후 中共은 중국의 전통적인 가정체도를 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中國人으로 하여금 價值體系와 生活方式의 突變을 느끼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국인들은 ‘人民公社’가 건립된 후 비로소 무엇이 공산주의인가를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후 공산주의에 대한 배척운동이 일어났으니 그것의 구체화가 바로 ‘彭黃事件’이다.¹⁴⁾ ‘彭黃事件’의 영향으로 인해 文學에서는 現實主義 文藝思潮—‘罷官文學’과 ‘鬼文學’이 싹트기 시작했고 哲學에서는 孔子에 대한 각기 다른 평가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의 정치상의 의의는 中共黨내에 대투쟁을 유발시켰음이며 문화상의 의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점점 쇠퇴하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이다. 모택동은 이 사건후 ‘자본주의 부활’에 대해 대단한 충격을 받아 中共 中央 八屆十中全會에서 “절대로 계급투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하였으며, 이어 ‘文化大革命’을 발동하여 ‘兩條路線鬭爭’을 관철하였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은 단지 위기에 몰린 집승들의 싸움과 같아

14) 앞의 책, p.194~195.

15) 소위 ‘彭·黃事件’의 彭은 彭德懷로 中共國防部 長官을 역임했고 黃은 黃克誠으로 中共 總參謀長을 지냈다. 1956年 中共은 ‘三面紅旗’를 실시하여 ‘人民公社化運動’을 추진하였다. 그때 彭德懷가 毛澤東에게 ‘萬言書’을 올려 反對를 표시하였으니 후에 彭·黃 모두 罷官되었다. 이를 일컬어 ‘彭·黃事件’이라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상승을 촉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異化만 가속화했다. 1976 년 모택동이 사망하고 이어 ‘四人幫’이 실각한 후 화국봉과 등소평이 차례로 집권하였다. 등소평은 中共 十一屆三中全會 이래 ‘四化’¹⁶⁾를 소리 높혀 부르짖었으며 경제개혁 추진 및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문화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계급투쟁을 완화하고 인민공사를 취소함으로써 人民들로 하여금 점진적이고 局部的으로 중국 전통 생활양식을 회복케 하였다. 이것은 곧 모택동사상의 반동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쇠퇴를 암시하는 것이다.

Ⅳ. 臺灣海峽 文化 相互作用의 장애

중국대륙에서 일찌기 1957 년 鳴放時期 지식분자의 한사람인 章伯均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결코 중국문화와 부합할 수 없음에 힘입어 ‘中國文化優越論’을 외쳤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탐독하는 것은 國籍家書를 읽는 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다. 1962 년 지식분자 馮友蘭·張岱年 등은 ‘道德繼承論’을 외쳤으며 그들은 古今이나 혹은 新舊 道德 間에 일정한 계승관계가 있어 단번에 단절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劉節의 ‘尊孔論’은 孔子의 ‘仁愛’ 철학을 어떠한 사리를 막론하고 모두 들어맞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文革’ 후 중공의 학술계는 전통문화의 再整理, 中·西文化의 再探求 및 中國文化의 세계적 주도역할을 요구하는 바람이 일어 ‘중국문화 현대화’에 대한 ‘文化熱’이¹⁷⁾ 提高되었다. 특히 철학·문학·영역에서 그들은 ‘人性論’으로 ‘階級論’을 배척하고 ‘傷痕文學’·‘反思文學’으로 ‘尋根文學’으로 발전하였다. 중국인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16) 소위 ‘四化’란 工業現代化, 農業現代化, 科學技術의 現代化 및 國防의 現代化를 말한다.

17) 王銳義, “文化研究中的 몇 가지 問題에 關해서”, 「新華文摘」 第一期, (北京, 人民出版社, 1987年), p. 155. 소위 ‘文化熱’이란 中國 傳統文化의 연구 및 中西文化의 우열을 비교하는 思潮로 이것은 八十年代에 발생한 것이다.

것일까? 이것은 오늘날 중국대륙 지식분자들이 열심히 탐구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중국대륙 지식분자들이 전통문화 부흥을 기대하는 심정과 행위 取向의 反映이기도 하다. 그중에는 또한 反傳統熱도 있지만 그것은 現狀을 改變하려고 하지만 감히 직접적인 비판은 못하고 전통문화의 비평을 빌어 그 시대의 폐단을 들추는 것이다.¹⁸⁾

중화민국이 堅持하는 바의 原則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반대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반대하므로 말미암아 일찌기 1958년 張君勱·唐君毅·徐復觀·牟宗三 등이 발표한 「中國文化를 위한 世界人士들에 警告하는 글」이 있으며 이후 新儒學의 臺·港(홍콩) 두 곳에서 일어났다. 이어 1966년 蔣介石 총통은 ‘中華文化 復興運動’을 발기하였고 또한 析儒敎를 발양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저지하려 했다. 근래에 와서 중공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수정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海峽兩岸의 軍事 대치는 그 상태가 날로 완화되고 있다. 따라서 文學界에는 海峽兩岸의 學術交派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먼저 文化交流·經濟整合으로부터 최종적으로 政治整合을 달성하여 점진적으로 中國을 통일하는 것이다.

上述한 바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오늘날 海峽兩岸의 지식분자들의 心聲은 한결같다. “吾聞用夏變夷者，未聞變於夷者也。”(孟子：나는 夏로서 오랑캐를 변화시키는 것은 들었어도 오랑캐에 의해 변화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이것은 중국인의 文化信念이자 海峽兩岸 지식분자들의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는 기초이다. 중국인은 항상 중국은 하나의 天下며 단일한 中國文化의 天下라고 여긴다. 중공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고 중국을 분열시키지 않는다면 海峽兩岸은 統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오늘날 중국 문제가 이미 어느 黨이 정권을 장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종류의 사회제도가 중국인으로 하여금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또한 어느 文化가 가장 合法性과 보편적인 만족을 지

18) “方勵之 談話”，「中央日報」(臺北，1788年 9月 8日)。

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다. 中共이 中國大陸을 통치한 지 30여년이 되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文化가 중국인에게 적합하지 않아 人民들은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이 때문에 중공당 내에서는 분열이 초래되었으며 등소평은 부득이 마르크스·스레닌주의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중공이 또 다시 무력으로 대만을 '해방' 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시행한다면 民心을 얻을 수 없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란이 자주 발생함과 동시에 분열이 가속화할 것이니 그러면 도대체 중국을 어떻게 통일해야 하는가? 오늘날 중국의 근본문제는 무력통일도 아니고 정치통일도 아닌 바로 문화의 통일인 것이다. 소위 문화통일이란 文化整合(integration)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海峽 兩岸의 지식분자들이 추구하는 文化 整合의 理論 모델은 단순히 서양 문화 體系下의 整合이 아니며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 下의 整合도 아닌 孫中山先生께서 주장한 바의 우리 文化 발양과 아울러 世界文化를 흡수하여 우리의 것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 모두에게 친숙하고 인정되는 생활방식을 추구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것이며 또 중국대륙에 반드시 私有財產倫理本位 및 自由民主로써 기초로 삼는 現代化 사회 구조를 확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상적 모델만이 그 文化 體系 속에서 고도의 合法性과 역활성을 확립할 수 있다. 그러나 歷史를 보면 海峽 兩岸의 文化整合은 비록 그 必然性을 인정하지만 客觀環境의 制約을 받는 고로 오히려 단기간내에 급속하도록 발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文化整合은 現實政治에 그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분열된 정치상태의 文化整合 形式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自發的 發展形式으로 쌍방의 民間社會成員의 상호작용 행위로부터 그 整合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변천과정은 먼저 文化整合으로부터 政治整合을 이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自覺的 發展形式으로 政府指導의 상호작용 행위로써 그 整合을 가속화하는 것이며 먼저 政治整合을 하고 더 나아가 文化整合을 대동하는 것이다. 오늘날 海峽 兩岸의 統一에 두번째 形式을 취할 수 있

는 가능성은 아직 시기가 성숙되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중공은 비록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수정은 했지만 아직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고 있어 과거의 佛敎 및 기독교와의 경우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중공은 政權·軍隊 그리고 뛰어난 조직과 투쟁적인 ‘職業革命家黨’을 갖추고 있다. 공산당의 정책은 변화가 심하므로 등소평이 비록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수정하고 있지만 결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四個堅持¹⁹⁾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독단적이고 전체적인 정치 권력집단인 중공은 스스로 建黨 기초가 되는 意識形態 및 공산당 관료 통치자의 특권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아울러 多元化 發展原則을 수용하여 평화적으로 民主政權으로의 전환을 꾀하여 ‘文化中國’의²⁰⁾ 건설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지만 실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중공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海峽 兩岸 文化相互作用의 장애를 해소할 수 없을 뿐더러 두 개의 意識形態 마찰 또한 여전히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다. 그러나 中華文化는 深原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외래문화와의 충돌時에는 자신의 새로운 싹이 成長하는데 도움이 되는 空氣와 陽光이 부족하기 때문에 陽性的이고 빠른 상호작용은 많은 곤란을 당하지만 점진적인 상호작용은 어떠한 정치 역량도 방해할 수 없으며 통치자 개인의 의지로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海峽 兩岸의 高度의 文化 相互作用은 必然的이며 아울러 이미 부단히 發展하고 있지만 文化 相互作用으로 政治整合(integration)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상호작용 과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一方의 노력과 정책행위로 만든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문제점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19) 소위 ‘四個堅持’란 社會主義 路線의 견지, 共產黨의 領導 견지, 無產階級 독재 견지,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毛澤東思想 견지를 말한다.

20) 소위 ‘文化中國’이란 中國은 반드시 共同文化로 統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일종의 生活方式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통일은 반드시 人民이 자유롭게 生活方式를 선택함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인으로 말하자면 文化가 가장 높은 概念이고 國家는 그 다음이다. 소위 ‘中國’ 혹은 ‘中國人’은 모두 文化概念이지 결코 政治概念이 아니다.